

목회를 하다보면(4)

장 의 성(목사, 익산 제자교회)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참 마음이 괴로울 때 /고집 피우지 마라/
계속 심방을 해라 /계속 성실하라 /괘씸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모든 손을
내려놓으면 곧 너만 외로워질 것이요 /너는 스스로 더 큰 성벽을 쌓아놓을
것이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더 외롭고
/나중엔 두려움까지 갖게 될 것이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니? /모두가
친구이고 모두가 적이다 /어차피 너를 다 이해하고 /사랑할 이는 너밖에
없는 것 /쓸모없는 일에 정열 쏟지 말고 /네 할 일 그대로 하라 /속상한
일이야 어찌 이것뿐이라? /어쩌면 인생 자체가 속상한 일 /그러니 속이
상하지 않으려면 그냥 가야 하느니 /차라리 속이 상하더라도 /이렇게 살아
뭔가를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이란다 /몰라준다
고 속상한다고 멈추지 마라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단다 /하다가
멈추면 아니 한만 못하단다 /그냥 가라 /그냥 사랑해라 /너는 목사/목사로
하던 일을 그냥 해라 /결코 멈추지 마라 /그게 네 힘이다.

이 시는 부산 좋은나무교회에서 목회하는 박 철 목사님의 시(詩)인데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래 맞아” 라고 공감할 만한 글이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굴욕을 감당해야

한다. 개척교회를 한다면 모를까 기존교회에 들어가면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이라는 옛날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목사에게 주어진다. 시어머니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옛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한 명이지만 오늘 목사 며느리는 장로란 시어머니가 여럿이다. 시어머니가 어디 장로뿐인가? 장로가 시어머니 행세를 하니 안수집사 가운데도 시어머니 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고 권사들 가운데도 시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많다 보니 목사 며느리는 죽을 맛이다. 목사만 며느리인가? 사모도 졸지에 며느리 노릇 해야 한다.

방정(方正)하면 건방 똘다 하고/ 정숙하면 내숭 똘다 하고/ 청빈하면 궁상 똘다 하고/ 많이 배우면 목사 앞서 간다 하고/ 적게 배우면 무식하다 하고/ 눈물 흘리면 질질 찐다 하고/ 웃고 있으면 무게 없다 하고/ 절약하면 인색하다 하고/ 넉넉하면 험프다 하고/ 심방 동행하면 설친다 하고/ 동행 안 하면 주의 일 무관심하다 하고/ 자녀를 잘 키우면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 하고/ 잘못 키우면 모범되지 못한다 하고/ 교회 성장하면 교만한 사모라 하고/ 교회 성장 안 하면 내조 잘못된 자라 하고/ 병들면 목사 가시라고 하고/ 건강하면 제 몸만 챙기는 사모라 한다.

이 글은 고 훈 목사님이 쓴 ‘사모의 길’ 이란 시 구절이다. 이 시도 읽노라면 “그래 맞아” 라고 탄성을 지를 사모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목사의 길, 사모의 길이 편치 않는 가시밭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고 사모가 되려고 할까? 그것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는 제왕적 목사의 이미지가 아닐까 한다. 실제 대형교회 연봉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어떤 목사는 연봉 6억을 받는다고 하니 대통령보다 높고 국회의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3-4천명 모이는 교회 목사면 연봉으로 2-3억은 받는다고 하니 목사들이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릴 만하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교회의 목사의 이미지는 대기업의 CEO 같다는 인상

을 준다. 최고경영자로서 만일 영업 실적이 저조하면 중역들인 장로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마치 주식회사의 중역인 양 연말 정책당회에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당회장 교체를 거론하며 압박을 가한다. 그러니 담임목사는 어떻게 하든 실적을 올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핑 잡는 것이 매라는 공식이 성립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다. 교세 증가를 위해서는 대형버스를 돌려 주변 지역을 싹쓸이해야 하고, 현금 증가를 위해 일천번제라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현금 명목도 개발하였다. 소액이지만 일단 일천번제 현금에 가입시키기만 하면 천 번은 자동적으로 불입되니 교회 재정 운영상 보통 수지맞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유능한 CEO 목사가 하는 일이고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하면 무능한 목사가 되고 마는 것이 대한민국 목회 현장이다.

하여튼 잘만 하면 연봉 억대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목사라 보니 예상 통합측 경우 목사 지망생들은 재수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지방에 있는 신대원에라도 들어가는데 보통 2대 1 경쟁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통합측 교단만 해도 매년 천명의 목회자가 배출되는데 대교단, 군소교단 합하여 약 200개에 달하는 신학교 전체로 보면 매년 만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다 마음 한구석에 대형교회를 비전으로 품고, 오직 믿음으로 개척하고, 오직 믿음을 설교하며, 교회성장을 꿈꾸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매년 3천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마치 동네 가게들이 수시로 개업하고 폐업을 반복하듯이 한쪽에서는 교회가 축복 속에서 개척되고 한쪽에서는 한숨 속에 폐쇄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담임목사 부임 시 은밀한 뒷거래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요즘은 이 은밀한 뒷거래가 부목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뒷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 중세교회가 성직 매매를 해서 개혁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개신교회들이 중세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직 매매를 공공연히 하는 세상이 되었다. 오호 통재라! 퀴바디스 도미네!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 대한 단상

한국 기독교의 과제는 분열을 극복하는 연합에 있다. 과연 교회의 연합은 가능할까? 그런데 교계의 연합을 놓고 현재 한기총과 한교연 두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그 배후에는 합동과 통합이 자리 잡고 있다. 즉 교회 연합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합동측이 좌우하는 한기총과 통합측이 주축인 한교연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연합은 결국 합동과 통합의 갈등 고리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푸는 가에 달려 있다.

합동은 무엇이고 통합은 무엇인가? 그 직접적인 갈등의 골은 WCC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고, 그 밑바닥에는 신, 구 정통주의에 있다. 합동은 올드 프린스톤이라는 (구)정통주의 신학에 있고 통합은 뉴 프린스톤이라는 신정통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단이다. 그리고 두 신학의 차이는 성서관에서 현격하게 나타난다. 즉 합동의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축자영감설에 가까운 성경무오설에 입각해 있고, 통합의 신정통주의는 성경무오설을 성경의 권위라는 점에서 믿으면서도 사본상의 오류를 인정하는 문서비평 가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합동측 경우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통합측은 해석학적 과정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서관의 차이는 합동측과 통합측의 분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연합이 쉽지는 않다.

이런 성서관의 차이 못지않게 교회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정통주의인 합동측은 퓨리탄 정신이 강해 천주교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분리주의 입장에서 서 있다. 반면 통합측은 전반적으로 합동측에 비해 덜 반(反)가톨릭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 감리교에 대해서도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라는 칼빈주의 정통주의가 합동측에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통합측은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여 감리교와 연합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마지막으로 합동과 통합의 기질적 차이 중 하나는 대(對)사회관으로 합동측은 사회참여, 즉 정치참여를 상당히 거부하였으나 민주화 이후부터는 오히려 정치참여에 활발한 편이고, 통합측은 민주화 이전부터 사회참여에 다소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던 바 노동운동이나 인권운동, 빈민 운동에도 교단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서 합동과 통합이란 양대 교단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는데 성서관과 교회관과 사회관의 차이는 명분상 존재하고 그 밑바탕에는 정파적 이익, 교계 헤게모니라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양의 천주교 역사에서도 한 때 프란치스코파와 예수회가 서로 알력과 경쟁관계에 있었듯이 통합과 합동의 미묘한 라이벌 의식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본다면 한국 교회의 연합운동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世校